

웨신총회 제94회기 새 총회장에 성흥경 목사 선출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 · 총무 신언창 목사

교단성장발전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와의 정상화를 위해 힘쓸 터...



총회장 성 흥 경 목사

“총회를 위해 손발이 되어 섬기며 임원은 물론 원로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가 지난 9월 21일(월) 종로5가 백주년기념관(소강당)에서 제94회기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총회장 성흥경 목사,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를 선출했다.

부회총회장 정가남 목사(지저스타임즈 사장)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서기 신언창 목사(성암교회)기도와 회의록서기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성경말씀 창세기 43:6~7, 사도행전 27:20~26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장영기 목사가 “책임지



는 사람이 리더입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리더 자는 진실하고 한 점의 의욕이 없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며 총회발전과 화합에 힘쓸 것을 주문했고, 직전총회장 장창수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임철환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분별위원회에 이정휴, 박노경, 이영형, 유승태 목사가, 분별위원회에 손백두, 정광철, 손성규, 김병호 목사 등이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오후 총회가 개회되고 임원선거에서 신임총회장 성흥경 목사(송석교회)가 선출되고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지구총교회) 서기 김준택 목사(은천교회), 부서기 조광표 목사(목포만나교회), 회의록서기 이기식 목사(한샘교회), 부회의록서기 고영전 목사(대망교회), 회계 허성인 목사(신성교회), 부회계 정일량 목사(향기로교회), 총무 신언창 목사(성암교회), 감사 전현구 목사(온누리교회), 이일영 목사(성문교회) 등이 선출됐다.

신임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취임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립니다. 그리고 웨신총회를 사랑하고 총대여러분과 총회 산하 지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총회장으로서 총대원들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손발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아울러 임원들은 물론 총회가 바로 서 가기를 원하는 원로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웨신이 정한 헌법과 규약을 준수하는 교단으로 힘써 나갈 것이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중흥교단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직된 상비부가 총회발전에 활발하게 연구하며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와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웨신총회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한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인터뷰를 통해 웨신총회를 감지해 평가 해 달라며, 보수교단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했다.

그리스도의교회 제74차 총회에서 이강평 목사 유임

세계교회 속에 한국 그리스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지난 9월 21일~23일(2박3일) 제주 네이버호텔에서 ‘새 힘으로 도약하는 교회’란 주제로 제74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첫날 김집음 목사(신갈교회)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에 강보석 목사(초대교회)가 기도드리고, 부회장 장성영 목사(경인교회)가 12:1~3절 말씀을 인용 “헌신의 자세”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장 이강평 목사(예수사랑교회)의 환영사와 증경회장 최홍철 목사(반석교회)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74차 총회가 개회되고 증경 회장단은 추천으로 회장 이강평 목사(예수사

랑교회), 부회장 육윤식 목사(충남제일교회), 최병준 목사(행복한교회), 김재용 장로(목포교회)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다. 상정안건에서 2016년 세계 그리스도인 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건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회장 이강평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서 “증경회장님들의 간곡한 부탁에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1년 동안 봉사하려고 합니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정체성을 확립하여 협의회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 서울기독교대학교에 교역자 재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역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 교역자들의 목회 비전을 위하여 지난 전국대회 강사로 왔던 박 러셀목사(미국 사우스이트교회)가 운영하는 교역자 트레이닝 코스에 매년 30명의 교역자들이 이수하여 한국교회에 적용하여 한국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 2016년 세계 그리스도인 대회 준비위원회를 인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 필리핀 그리스도의 교회 등 동남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과도 교류하여 동 동 아시아 선교에 교두보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2년 브라질 부라지리아에서 있는 세계 그리스도인대회에서 회장(2012~2016)까지로 취임하여 4동안 세계교회 속에 한국 그리스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제 74차 임원명단>

회 장 : 이강평 목사 (예수사랑교회)

부 회 장 : 육윤식 목사 (충남제일교회)

최병준 목사 (행복한교회)

김재용 장로 (목포교회)

상임총무 : 김탁기 목사 (수원교회)

협력총무 : 엄만동 목사 (성광교회)

주경림 목사 (해남교회)

이수영 목사 (신성교회)

김상영 목사(노원미파누엘교회)

서 기 : 김용강 목사 (청주중앙교회)

부 서 기 : 강보석 목사 (초대교회)

회의록서기 : 설상문 목사 (부평교회)

회 계 : 신동식 목사 (성동교회)

부 회 계 : 김택민 목사 (대전교회)

감 사 : 이영호 목사 (온광교회)

임원헌 장로 (신탄진교회)

사설

총회장은 통치자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장로교 총회장이 교단장으로 격상되더니 그 권위와 권한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가 근자에 와서는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교단의 통치자로 군림하는 세속적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총회장이 되면 정부의 대통령처럼 신하기관을 “돌아본다”는 명목으로 연초에는 “초도순시(?)”까지 하고, 나아가 총회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는 탈법적인 일까지 예사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 고신의 경우 학교법인인 위기를 맞으면서 탈법을 뛰어넘어 초헌법적인 행사가 더러 이루어졌는데, 비상상황에서 일어난 이 예외적인 일들이 정상화 후에도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서 장로교 정치의 근본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특히 총회장을 중심한 임원회가 위기관리위원회나 사법기관, 혹은 불치기 구라도 된 것처럼 월권하는 일도 잦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사건을 예로 들어 보자. 총회임원회가, 고신대학교 교수들 중에 다교단에서 목사로 인수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우리는 이것이 투서나 전화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님 진정서 형식으로 접수된 서류인지 알지 못한다)을 받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 형직 총장이 본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결정을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선거개입이라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어서 고신대학교의 신학과 교수 6명이 서명하여 현총장의 총장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심사해 달라는 청원한 건을 접수하고, 이를 총장선거를 위해 소집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급히 다루어 “자격 없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특정후보자를 노골적으로 배제시키려 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선거법을 위반한 잘못도 되지만, 보다 더 큰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임원회가 취급할 수 없는 사안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는 총회가 폐하면, 그야말로 사무와 회계 등 지극히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혹 총회가 맡긴 일이 따로 있을 때는 그 일만 맡아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임원회로서는 어떤 서류가 올라오면 일단 합법적인 서류인지를 살펴 접수하고, 이를 상비부(상임위원회)에 넘기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서류의 성격에 따라 총회가 직접 다루어야 할 일이면 차기 총회 개회 시까지 보관할 뿐이다. 이번의 경우 신학부 교수들이 이사회에 올린 서류(총장후보자자격검증)를 이사회가 다룰 수 없다면서 이사회로서는 이를 다룰 수 없으니 총회로 올리자고 결의를 한 일이 없다고 한다. 총회장에게로 올렸다면 이는 마땅히 총회 시까지 기다려야 할 사안이지 임원회가 처리할 일은 아니다. 총장후보자자격검증은 마땅히 이사회가 해야 할 일일뿐 임원회에는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다.

만약 이사회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니 이를 총회에 맡기자고 했다면 이는 총회 개회 후 총회가 어느 부서에 맡기든지, 혹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다. 긴급하다고 해서 월권해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대관절 이사회가 총회에 올린 정식으로 올린 것도 아니지만 서류를 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심의하고 결정한다 말인가? 만약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누군가가 또 개인적으로 어느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진정서를 올린다면 그것도 임원회가 심사할 것인가? 이는 분명한 권력남용이며, 법으로 말하면 불법행위이다.

장로교 총회장은 교단장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다. 총회가 끝나도 총회장의 직명은 계속되지만, 그 직무한계는 사무 행정적인 봉사자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총회임원회는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총회에서 위임한 일과 총회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할 뿐이다. 교단마다 총회는 시작되었다. 추대된 총회장들은 물론 이미 선출된 총회장들은 장로교 정치원리의 정신을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여 교회정치의 세속화를 막고,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성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 마지않는다.

코트(공동)



제94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총회장 성 흥 경 목사



부총회장 이 흥 규 목사



서기 김 준 택 목사



부서기 조 광 표 목사



회의록서기 이 기 식 목사



부회록서기 고 영 전 목사



회계 허 성 인 목사



부회계 정 일 량 목사



총무 신 언 창 목사



감사 전 현 구 목사



감사 이 일 영 목사



감사 정 창 갑 목사

「웨신총회는 제94회 성총회를 9월21일 오전11시 한국백주년기념관에서 하나님의 성은 중 잘 마칩니다. 총회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회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되시며 성장하는 94회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총회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섬기는 자세로 다짐하면서 총회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회장 성흥경 목사와 임원일동 —

www.웨신총회.net



웨신총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01호)

전화 : 02) 835-2607 팩스 02)835-2628 E-mail : weshinch@korea.com

예정(합신) 제94회 정기총회 총회장에 임석영 목사 선출

부총회장에 장상래 목사, 성문근 장로 피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94회 정기총회가 9월 22일 오후 2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남문교회당에서 개막돼 제94회기를 섬길 총회 임원들을 선출하는 등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전국 20개 노회 총대와 연권회원 등 총 200여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드러진 개회예배는 직전총회장 이선웅 목사의 사회로 직전총장 부총회장 나택권 장로의 기도, 직전 서기 이주형 목사의 성경봉독, 남문교회 찬양대의 찬양, 이선웅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선웅 목사의 인도로 성찬식을 갖고 증경총회장 김정대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절차에 따라 총회가 개최되고 바로 임원선거에 들어가 제94회 신입원은 다음과 같다. 신입총회장 임석영 목사(고덕중앙교회), 목사 부총회장 장상래 목사(동서울노회 은평교회), 장로 부총회장 성문근 장로(인천노회 동부교회), 서기 전 련 목사(북서울노회 화평교회), 부서기 최철용 목사(서서울노회 시온교회), 회록서기에는 조용대 목사(제주노회 중문제일교회), 부회록서기 이내원 목사(부산노회 부산영화교회), 회계 강원진 장로(남서울노회 대림교회), 부회계 김원철 장로(중서울노회 벨렘교회) 등이 각각 선출됐다.

예정(고려) 제59회 신임 총회장 홍록두 목사 선출

부총회장 박창완 목사 선출, 총무 강구원 목사 유임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는 제59회 정기총회를 9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놀노리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캠퍼스에서 가졌다.

총회장 이무영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예배에서 이현상 목사가 기도를, 회록서기 김원구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고, 총회장 이무영 목사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었노니..."라는 제사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마쳤다.

이어 사무처리에 들어가 전국에서 목사 127명 장로 71명으로 총 198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선교 30주년을 감사하는 '세계선교대회'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2013년 wcc의 부산 총회 개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임원선거에서 신임총회장 홍록두 목사를 선출하고 이어 부총회장 박창완 목사, 서기 이현상 목사, 부서기 이상용 목사 회계 이영훈 장로 부회계 이대제 장로 회록서기 기원구 목사 부서기 허호성 목사 총무 강구원 목사 등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총회장 홍록두 목사(사진)는 "교단 발전에 위상을 높이며서 교단 부흥에 있어 최선의 각오로 임할 것이며, 총회선교 30주년 세계선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어 홀 총회장은 고려신학교를 통한 복회자 및 선교사 양성에도 헌신을 다할 것이며, 한국교회 부흥과 평화운동에 있어서도 힘써 노력할 것을 전했다.

피어선총회 제17회 신임총회장 원종문 목사 선출

개혁주의 신앙을 수호하며 국내외 복음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다짐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어선 총회가 9월 14-15일 경기 사평군 설악면 화곡리 소재, 열린교회(원종문 목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란 주제로 제17회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원종문 목사를 선출하고 신입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부총회장 원종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예배에 권영순 목사가 기도를, 유만중 목사가 '뜻대로 행하여 전진하라'란 말씀으로 설교에 나섰다. 이어 김두만 목사, 박성호 목사, 장병운 목사 등이 각각 축사했다.

총회장 유만중 목사는 "총회의 불미스런 행보로 인해 적잖은 아픔이 있었고 아직도 근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그러나 성숙한 모습으로 가기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유 목사는 또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이 총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9개 노회, 총 79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



에서 임원선거, 상임위원회 및 상비부, 기관 보고, 신안건 토의 등이 처리됐다.

제17회기 총회를 이끌어갈 신임총회장 원종문 목사는 "총회가 화합하고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어진 직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부끄러움 없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발전하는 총회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수호하며 국내외 복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요양원을 비롯하여 주부아카데미, 어린이

이를 위한 방과 후 교실운영 등 주민중심의 선교전략을 수립하고, 교회성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7회기 신입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원종문 목사 부총회장 최순복 목사, 서기 권정구 목사, 부서기 진영식 목사, 회록서기 이국대 목사, 부회록서기 이봉일 목사, 회계 이정자 목사, 부회계 박영자 목사, 총무 고병훈 목사 등이다.

故 김준곤 목사 한국교회의 햇불이었다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았으며 민족 복음화의 헌신을 다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한국 CCC) 총재 김준곤 목사가 29일 11시 10분 86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고인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영인실 11호에 마련됐으며, 장례식은 오는 2일 오전 9시 서울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에서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진다.

평생을 한국교회의 햇불처럼, 복음만을 위해 헌신을 다했던 고 김준곤 목사는 1925년 3월 28일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에 서 부친 김면주 씨와 모친 김봉안 씨의 사이에서 8남 중 넷째로

태어났다. 일곱살 때 모친의 친척 되는 낙도의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었으며, 1951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조선대학교 문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숭실중고등학교 교목, 교장으로 봉직했다. 그리고 여수 애양원 나환자 신학교인 한성신학교 교수로 잠시 사역한 후 1957년 미국 풀러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1958년 11월 2일 한국CCC를 창설하고 서울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개인전도사역을 시작했다.

2003년 2월 17일 고인이 한국CCC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CCC를 통해 훈련 받은 수는 30만 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부는 사귀사건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고인은 민족의 수난과 개인과 가족의 고난을 겪으면서 민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그 후 '민족복음화의 환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제목의 노래로도 만들어져 널리 불리고 있다. 한 평생을 한국교회의 햇불처럼 살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서 잠이든 김준곤 목사

감리교신학원 신임이사장 권오서 감독 취임식 가져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슬리채플관에서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 600여 명의 학생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감리교신학원의 신임이사장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문종복 목사의 후임으로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권오서 목사(61.춘천중앙교회, 전 동부연회감독)는 지난 5월에 열린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에서 후보군 없이 실시한 2차 무기명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이날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감리교 당당뉴스에 의하면 추연호 감

신대총동문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김진호 전 감독회장은 '사자가 이끄는 사슴 떼는 사슴이 이끄는 사자 때 보다 강하다'며 신임 이사장을 향하여 좋은 지도자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설교로 취임을 축하했다.

또한 교수와 학생, 이사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발전하는 감리교신학대학을 만들어 가 달라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에 대해 권오서 신임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교의 발전과 면학을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이는 신경하 전 감독회장을 비롯하여 이영익 CBS 이사장이자 서울신학대학 이사장 등이며 김홍기 감신대 총장이 학교를 대표하여 인사를 하였고 장광영 전 감독회장이 축도를 했다.

이외에 여러 신학대학 이사장들과 총장, 교계, 언론, 교회, 평신도단체 등에서 보낸 화환이 취임식장 입구와 연단에 즐비하였다. 권오서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을 통해 감리교 신학대학에 2억원의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예정(중앙) 제94회 정기총회, 백기환 목사 유임

"교단발전 정착의 해"를 주제로 열린 총회에서 목회자 별세기금 제도 마련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는 지난 9월 3~4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제94회 정기총회가 열려 백기환 현 총회장을 유임시키고 총회회관 건립과 중층 복지 사랑의 열매 의무기금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 인간을 결의했다. 이날 중앙총회는 소속 목회자가 별세를 했을 때 의무적으로 10만원씩 납부할 것을 했다. 이는 일종의 상호부조 형식의 품앗이와 같다고 했다.

총회 관계자는 "수년 동안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별세한 목회자가 1명뿐인 데다 참여 실적이 저조했다"며 "목회자와 가족들의 복지와 미래를 대비한 총회 결의가 나온 만큼 앞으로는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 300여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유임된 총회장 백기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주제에서 밝혔듯이 교단 발전 정착을 위해 교단 신화 모든 교역자와 기관이 하나로 결집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94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백기환 목사 △부총회장 대의 부총회장 고금용 목사 행정 부총회장 최영순 목사 재무 부총회장 김원배 목사 재정 부총회장 유금순 목사 △서기 이강택 목사 △부서기 권정숙 목사 △회계 이복순 목사 △부회계 김애자 목사 △회의록서기 윤광선 목사 △부회의록서기 유정재 목사 △총무 심우영 목사 △부총무 김동진 목사



성총회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http://cco.or.kr>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30번지, 환원빌딩 6층
전화 : 02-3676-9995-6 • 팩스 02-3676-9998
홈페이지 관리자 메일: zccc@paran.com
협의회 메일 cco0333@hanmail.net

그리스도의교회 협의회

Korean Conference of Christian Churches

2009년 9월 21일~23일 제 74차 성총회를 축하합니다

회 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협력총무	협력총무	협력총무
 이 강 평 목사	 육 윤 식 목사 충남제일교회	 최병춘 목사 행복한교회	 김재운 장로 목포교회	 김탁기 목사 수원교회	 엄만동 목사 성광교회	 주경림 목사 해남교회	 이수영 목사 신성교회
협력총무	서 기	부 서 기	회의록서기	회 계	부 회 계	감 사	감 사
 김상영 목사 노원임마누엘교회	 김광강 목사 청주중앙교회	 강 보 식 목사 초대교회	 설 상 문 목사 부평교회	 신 동 식 목사 성동교회	 김덕원 목사 대전교회	 이 영 호 목사 은광교회	 임 헌 근 목사 신탄진교회

예장(순장) 제57회 새 총회장에 전총헌 목사 선출



부총회장 지태일 목사, 박종선 장로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총장)는 9월 21일~22일 백암수양관에서 제 57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 유영섭 목사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부총회장 지태일 목사의 기도예에 이어 유 총회장은 “요단에 들어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회무처리에 들어가 임원선거에서 신임총회장 전총헌 목사(동천교회)가 선출되었으며, 부총회장 지태일 목사(새빛중앙교회)가 연임되고, 부총회장 박종선 장로(동천교회), 서기 강철 목사(대천교회), 회록서기 이재성 목사(신천교회) 회계 한명학 장로(대천교회) 부회계 박영환 장로(영암교회) 등이 선출됐다.

신임총회장 전총헌 목사는 “교단이 아직은 약하

기 때문에 약한 교회들도 많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 건강한 총회,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는데 있어 초점을 맞추고, 또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으며, 동시에 총회가 권위적인 것에서, 또는 상회기관으로서 지시하고 다스리는 것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정책으로 화합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교단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영성훈련에 있어서 신학교 총장의 협조를 얻어 교육부와 연관해서 영성회복에 맞는 세미나를 개최해, 보다 건강한 총회, 건강한 개 교회 성장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데 있어 역점을 두고 왕성한 활동으로 봉사하는데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예장전총 제3회기 신임총회장

김동권 목사 만장일치선출

예장전총은 지난 9월 7일~9일까지 경기 이천 총회신학교 대강당에서 제 13회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총회장에 김동권 목사를 만장일치 선출했다.

700여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교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첫날 1부 개회예배와 2부 성찬예식을 가졌으며, 이어 총회가 개회되고 임원선거를 비롯해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헌의안 보고, 임원회보고, 총무보고, 상비부보고, 신안건토의 등이 결의됐다.

이날 임원선거에서 총회장에 김동권 목사(사진), 부총회장 강태홍 목사, 서기 김한곤 목사, 부서기 유병찬 목사, 회록서기 홍원선 목사, 부회록서기 윤영화 목사, 회계 김세화 장로, 부회계 김영수 장로, 총무 강석준 목사가 선출됐다.

김동권 신임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 시대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며 전도를 위한 총회로 복음과 전도만이 우리의 사명임”을 밝히고 “현장 속에서 뿌리내린 복음이 교회를 통해 사용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미자립교회 전도 제자와 운동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폭발해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데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통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와 복지사업에 힘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전도 분위기를 조성해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할 것이며, 민족과 세계복음화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한국 전체교회와 교류 및 협력에 힘쓰고, 총회신학교를 지원해 복음제자양성에 내실을 기하는데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예장합동개혁 제54차 총회장 정서영 목사 연임



부총회장 이주섭, 조주선 목사

예장합동개혁총회 지난 9월 22일 오전 11시에 대전시 서구 문산동 예그놀리아빌딩 4층 상월리제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록서기 배영수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부총회장 이주섭 목사가 기도를, 부총회장 조주선 목사가 성경봉독을, 권미애

목사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정서영 목사는 “총회의 자제”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어 총무 김남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있었다.

아울러 총회장 정서영 목사(사진)의 사회로 제54차 정기총회가 개회되고 서기의 회원 호명과 회계보고, 각부보고가 있는 후 임원선거에서 현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연임됐다. 이어 기타 임원은 총회장에게 임임하고, 신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기도한 후 폐회했다.

뉴욕교협, 한독선연에 요청~!

순복음뉴욕교회는 장소사용 불허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총회장 김상복 목사, 이하 한독선연)”의 9월 24일 뉴욕에서의 첫 안수를 앞두고 9월 뉴욕교협(회장 최장섭 목사)과 뉴욕목사회(회장 송병기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수식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뉴욕교협의 양대 기관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한독선연의 보편적 당위성이 결여된 이동식 안수행위는 뉴욕교계에 더욱더 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기성교단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보호, 치리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배제한 체제體裁의 안수식은 연합체를 방해함아 오히려 더 많은 저질 목회자나 독선적 목회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



라고 전했다.

나아가 “더욱이 한독선연의 안수식이 뉴욕교계에 받아들여질 경우 교계의 모든 선교단체나 연합기구의 세(勢) 불리기 식의 부분별한 안수식 행위를 제재할 명분도 없어질 것이며 참으로 뉴욕교계를 어둡고 혼탁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며 안수식의 취소를 촉구했다.

한편 성명서가 발표되자 한 목회자는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에서 의사표현을 한 것은 시기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목회자는 “성명서 발표는 배타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도 냈다.

한편 안수식이 열리기로 했던 순복음뉴욕

교회(김남수 목사)측은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모은 정보와 뉴욕교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회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한독선연의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장소사용 취소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장소사용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교계 대표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독선연의 뉴욕관계자는 안수식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독선연의 실무를 총괄하는 총무 남양우 목사는 “처음 서울에서도 다 그랬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뉴욕교계 관계자들과 접촉을 나섬과 동시에 조기 뉴욕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또 총회장 김상복 목사가 문해해결에 나섰다.

뉴욕의 한독선연 관계자는 뉴욕교계 양단체의 성명서 발표를 접하고 “물론 교계단체가 해야 할 임무를 안다. 그런데 잘 알아보아가지 이단도 아닌데 인터넷으로 찾은 수준의 정보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으로 그만 중지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했다.

〈본지 제휴사 뉴스파워 뉴욕 맨션〉

‘예장개혁총회’ 제94회 정기총회 가져...

목회자 사례비 5% 교단...미자립교회 돕기 운동에 힘쓰자



신임총회장 이승렬 목사, 부총회장 장바울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가 지난 9월 7일(월)~9일(수)까지 수안보 상록호텔 대연홀에서 제94회 정기총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가져 화합과 일치, 교단발전에 역점을 둘 것을 다짐했다.

7일 오후 2시 서기 유인근 목사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회의록서기 양은화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이승렬 목사가 마24:15~22절

말씀을 인용 “시대를 분별하자”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총회장 이승렬 목사는 제94회 정기총회를 수안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총대여러분의 화합된 협력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교단이 든든히 서가는 것은 미자립교회가 성장하는데 있다면서, 우리 모두 사

례비 5%를 미자립교회를 돕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피력했다.

제94회 정기총회 선출된 임원

총회장 이승렬 목사, 부총회장 장바울 목사, 서기 유인근 목사, 부서기 신호연 목사, 회회록서기 양은화 목사, 부회록서기 황상모 목사, 회계 박병천 목사, 부회계 황관섭 목사, 총무 호성기 목사

예장합동연합총회 제94회 총회장 최남규 목사 연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연합총회 제 94회 정기총회가 9월 29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소재 분당 예광교회에서 개회되어 서기 이희철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예 박연준 목사, 성경봉독에 (경상노회) 박은희 목사, 사모들의 은혜넘치는 특별찬양에 이어 총회장 최남규 목사가 말씀을 통하여 제 94회 성총회가 성상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은혜롭게 됨을 감사드리다며, “도약하는 총회”라는 주제 아래 총력을 다해 총회 발전에 힘쓸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세대의 책임을 다



하는 총회가 되기 위해 많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경서노회)문양일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최태규 목사 집례로 시작된 성찬예식에서 분별위원회 정은희 목사, 분진위원회 강순기 목사가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회무처리에 들어가 임원선거에서 총회장 최남규 목사를 비롯해 임원들도 유임됐다. 안건토의에 이어 부총회장 김동순 목사 사회로 폐회예배에서 증경총회장 김우식 목사가 “기도의 응답”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으며, 총회장 최남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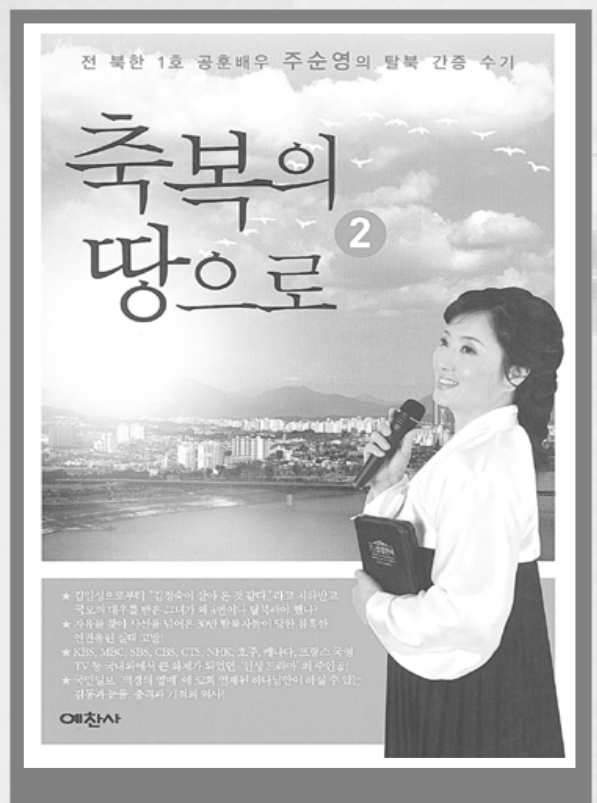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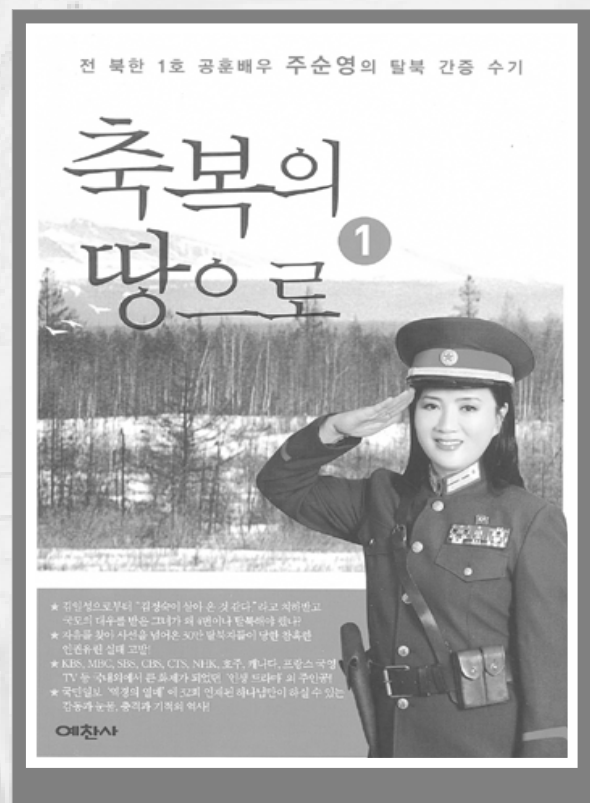
사선을 넘어서

전 북한 1호 공훈배우 주순영의 탈북 간증 수기

축복의 땅으로 탈북간증수기 1~2권을 출간 출판감사예배를 ...

2009년 9월 24일(목)오후2시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사)북녘사랑재단/한민족문화예술선교회 주최로 이루어졌다.

주순영선교사는 내 운명을 바꿔 놓은 한 권의 성경책을 글로서 잘 표현하고 있으며, “축복의 땅으로”를 출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한편의 책(축복의 땅으로)은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입니다. 이 책을 읽는 신앙인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 읽어져서 북한과 탈북자들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바라며, 나아가 복음통일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가정에 배 ■



소진우 목사
서울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거룩한 소망

성경 : 에베소서 1:15~22 찬송가 : 506장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알기 원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에 대해 알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가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데 더욱 힘쓰는 거룩한 소망을 품는 가정이 됩시다. 거룩한 소망을 품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서정(序程)

성경 : 에베소서 1:1~4 찬양 : 찬송가 46장
구원의 서정 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장의 서두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찬양합니다. 성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는 구원사역을 이루셨으며 성령은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도리는 전 인류 특히 성도가 필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같은 영적 통찰력을 겸비하여 실생활에 적용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가정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복음인 예수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이름 성도

성경 : 에베소서 2:1~22 찬양 : 찬송가 355장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생활을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죽은 사람이며 구원 이후의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대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써 가능했습니다. 새 생명의 소유자인 성도는 새로운 영적신분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화복하며 주의 지체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이름인 성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 에베소서 3:1~13 찬양 : 찬송가 233장

바울은 복음을 비밀로 언급하여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한 온 인류를 하나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되었으며 일꾼임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된 분명한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

성경 : 에베소서 4:1~16 찬양 : 찬송가 278장
오늘 본문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성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본받아 교회에 그 사역이나 직분 그리고 조직과 성정에 있어서도 조화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통일성은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달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가 될때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하나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벗어아임울수 있다.

성경 : 에베소서 4:17~24 찬양 : 찬송가 378장
하나님의 자녀도 빛과 어둠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옷 위에 새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임부터 시작입니다.

성경 : 에베소서 4:25~32 찬양 : 찬송가 505장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들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옛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까? 성경은 임부터 시작임을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릴때 새 사람의로서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거짓을 버리고 더

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새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받을 대상은 오직...

성경 : 에베소서 5:1~14 찬양 : 찬송가 507장
새 사람으로써의 삶에 대해 지금까지 성경은 소극적인 삶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적극적인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 즉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성품이 아닌 물질에서부터 권력까지의 성공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도가 본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경 : 에베소서 5:15~33 찬양 : 찬송가 172장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방언 예언 통변 치유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은사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서 은사를 통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때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좋은 가정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성경 : 에베소서 6:1~9 찬양 : 찬송가 414장
그리스도인이자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노예케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종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며, 주께 하듯 성실하게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곳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신갑주

성경 : 에베소서 6:10~13 찬양 : 찬송가 388장
수영선수수는 수영에 맞는 옷을 입고 육상선수수는 육상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또한 군인

은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듯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 가장 큰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 영적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신갑주(진리의 허리띠)

성경 : 에베소서 6:14 찬양 : 찬송가 384장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군인이 허리띠를 띠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띠는 군인에게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갑주를 바로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없이는 전쟁터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역시 마귀들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는 가정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신갑주(의의 흉배)

성경 : 에베소서 6:14 찬양 : 찬송가 210장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의의 흉배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쓴 분노의 화살, 미움의 화살, 자살의 화살을 맞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너는 별것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의인 예수그리스도의 의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신갑주(복음의 신)

성경 : 에베소서 6:15 찬양 : 찬송가 268장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적과 일대일로 싸움을 할 때 땅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우리를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인젠된 지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성도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는 마귀와 일대일로 싸움을 해도 미끄러 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어 미끄러 지지 않고 마귀들과 당당히 붙어 싸워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신총회, 44회 총회에서
고성과 폭력, 덕스럽지 못해

총회 회의장 출입막아 취재 기자들 항의에 문 열려...



▲ 동남노회 한 총대가 발언권을 요청하다 질서위원들에게 저지당한 후 폭행 당함을 폭로하는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제44회 총회가 지난 9월 14~18일 대부도 새중앙교회 수양관에서 개최되어 총회장에 김병규 목사가 유임되고 부총회장 박재열 목사, 이강섭 장로, 서기 최효식 목사, 부서기 조길준 목사, 회록서기 강부훈 목사, 부회록서기 우종욱 목사, 회계 문남규 장로, 부회계 이장일 장로 등이 새임원으로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서 대신총회는 많은 오점을 남겼다. 회의장 내에서 폭력과 고성 이 오가는 난투장으로 둔갑했고, 470여 명의 목사 장로 총대들이 참석한 개회 예배부터 순탄치 못했다. 소위 한국개혁과 신학의 정통성을 자랑하는 대신총회가 폭력배를 연상시키는 사실 경호원

들을 동원시켜 회의장 곳곳에 배치되어 총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언론 기자들의 회의장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총회관계자들을 만나 강력히 항의하자 오후 늦게야 회의장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취재가 이루어졌다.

이날 한 총대는 "법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해

야 하는 성총회에서 거짓이 팽배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총회가 단합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총회의 최대 관심을 모았던 탁용학 총무해임 건과 관련하여 총회는 총무에 대한 불신임안을 물자는 안과 화해하는 조건으로 6개월 후 사임한다는 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총무 불신임안 투표에 들어가 결국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총무가 소속된 동남노회는 "사회 법정에서 1억 4천 만원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이 사 및 논설위원과 해외지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
상임고문 :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부이사장 : 장창운 목사(열린천안교회)
사 장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부 사 장 : 현병우 목사(임마누엘선교교회) 민충만 목사(세계선교중앙교회)

전국지사
대전지사 이사장 : 박영우 목사(대전경찰청 경목위원회 상임총무)
대전 총청지사장 : 라영수 목사(지치점) 전광희 사모(부 장)
전남 목포지사 지사장 : 조광표 목사(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학장)
경북 대구지사 지사장 : 이상락 목사
전북 전주지사 지사장 : 박주성 목사(선일장로교회)

해외지사
우간다 지사장 : 김기일 선교사
미국 워싱턴 지사장 : 정형선 목사
태국 치앙마이 지사장 : 전승주 선교사
호주 지사장 : 이종수 선교사
일본 지사장 : 전동훈 목사(동경신학교 학장)
인도 지사장 : 문용기 선교사

본부 업무국 부장 : 정태중 목사
본사 이사회 사무국 : 전광희 부장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찰공제회) 1층
본지인터넷신문방송 www.JTNTV.kr (E-mail: webmaster@JTNTV.kr)
전화: 070-8230-0032, 0034, 02-741-0031, 02-7407-6574, 팩스: 02-763-0221
대표 : 011-468-6574

피종진 목사 10월 국내·외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5(월)~7(수) 부산 화양의교회(조경석 목사) ☎(051)612-9191
8(목)~10(토) 온양 소망교회(김광일 목사)
11(주)저녁 서울 새중앙교회(이상민 목사) ☎(02)919-2114
11(주)~13(화) 일산 그리스도교회(최재봉 목사)
12(월)~15(목) 광명 생수기도원(한정 윤순덕 목사)☎(02)2683-4202
12(월)~13(화) 세계신유복음선교회원장 강은숙 목사)☎011-570-8999
15(목)오후 서울 소망기도원(원장 연애에 목사)☎(02)3663-7777
16(금)~17(토) 부산 JSTV 리버빌엔터테인먼트 지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010-9269-7700
19(월)~21(수) 목회자부부세미나, 주최:전국미리교회동기운동본부
19(월)~22(목) 연산 베네딕도원(송명성 목사)☎(041)735-3321
22(목)~23(금) 한영신학대학교목영원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제155차 해외성회(155th Overseas Assembly)

26(월)~29(목) 중국(CHINA) 북경남서울중앙교회(양태 목사)
29(목)~31(토) 홍콩(Hong Kong) 애진교회(김한덕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www.nscs.or.kr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성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 김봉주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6: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A영재교육	오후 1:00(토)
일말과정	오후6(주일)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찾아오시는 길

차운 스쿨이	동부 경찰서
오산 신석교회	우치초등학교
영광리 중앙	이명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평안교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목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옵니다.



담임목사 장 승

은세상을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rmail.net H·P : 011-9027-9712

수표교교회 창립100주년 맞아 비전선포식

지나온 100년의 감사! 새로운 100년의 꿈!



1909년 9월 9일 창립되어 2009년 9월 9일 100년을 맞은 수표교교회(담임 김고광 목사), 지난 100년의 세월은 질망과 아픔, 고통의 수난도 많았다. 세종대왕 즉위 2년에 청계천에 다리를 하나 세웠다. 20년이 지나 그 다리 옆에 불의 수위를 채는 도구인 수표를 세웠으며, 홍수에 대비키 위해서다. 그 다리 이름이 바로 수표교였다.

1909년 원산 대부흥운동을 이끈 하디 선교사는 수표교 앞 기와집을 매입 교회로 사용했고, 미국 남감리회 선교 연회에서 한인수 전도사를 초대담임자로 파송해 1909년 9월 9일 수표교교회를 설립하게 됐다.

2009년 현재 수표교교회는 출석교인 800명, 14년간 담임을 맡고 있는 김고광 목사는 교회의 본분에 맞게 말씀과 기도, 전도, 봉사와 헌신이 성장의 원인이라며,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교인으로써 교인답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회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김 목사

는 교회답게, 교인답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신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 말씀을 바탕으로 성립된 신학을 말씀과 복화에 적용한 것이요, 설교를 통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성도들은 신앙을 생활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표교교회는 1년 경상비 가운데 약 1억5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교회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신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삼자교회 출신 조선족 신학생이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후원하고 있다.

이날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규학 감독은 “세상의 희망이 된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수표교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27일 타임캡슐 봉안식, 10월 4일 기념 조형물 제막식, 기념우표 발매, 100주년 앨범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진

행해 나갈 예정이다.

수표교교회는 3.1운동 당시 항일 투쟁의 거점이 되었고, 제 7대 신석구 목사가 재직 중 39인 중의 한분으로 3.1운동에 활동하다 수감되었으며, 39인 가운데 오하영, 정춘수 두 목사도 본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수표교교회는 애국하는 교회로서의 전통을 이어받아 매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렸고, 1979년 기념예배 때에는 故 신석구 목사의 장손인 신성균 장로가 태극기와 교회기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 위에 수표교교회는 김고광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서초동 지역에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온 교우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김 목사 부임 후, 교육관 구입과 교회 리모델링, 그리고 이삭의 집 봉헌 등을 통해 새로운 목회를 준비했다.

예전이 강조된 주일 예배와 평신도 교육원, 성인어학교실 등의 배움의 자리, 그리고 성육보육원, 서초노인대학, 수표교어린이집, 구림서초상명어린이집,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식사 등을 통해 봉사와 섬김을 지역사회에 베풀고 있으며 선교사 파송과 함께 세계적으로 많은 후원선교사들을 통해 세계 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김고광 목사는 “지난 100년간 수표교교회는 수표가 불붙이를 재는 자였듯이 교회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하늘 척도와 나라의 잣대가 되었다”며 “앞으로 하늘과 땅, 세상과 복음,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교류,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루는 시대와 민족의 징검다리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칼럼

— 청문회를 보고 —

바늘도둑과 소도둑

조선일보의 최보식 칼럼, ‘모두가 억울하리’라는 글을 읽었다. 그는 얼마전 ‘박근혜와 경상도DJ’라는 글을 올렸던 조선일보의 선임기자라 또 어떤 배설물을 뱉어놓았나 하고 읽었다. 그의 많지 않은 글을 읽으면서 MB와 코드가 잘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의 글이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의 글은 교활하다. ‘박근혜와 경상도DJ’의 글에서이다. “나도 박근혜를 좋아하지만~”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글의 서두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다. “그의 주변을 취재하는데, 한 인사가 말했다”로 친박 인사의 말이라는 것을 방방 돌려서 말한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지난 한나라당 경선에 대한 어느 신문의 기사에서 박근혜 진영과 MB진영을 비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을 기억한다. ‘MB진영은 너무 교활하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은 너무 순진하다.’ 어떻게 보면 지난 경선에서 승패를 가른 결정적 핵심이 이 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최보식 칼럼, ‘모두가 억울하리’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이번 개각인사의 청문회에 대한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서문이 이렇다. ‘후보의 ‘도덕성’을 너무 따지는 이런 청문회 때문에 장관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걱정한다.’ 주어가 빠져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한말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 비판을 피해 간다.

이는 회색분자들의 전형이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은 순진하게 법 지키고 살면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 목에 힘주고 살기 어렵다. 청문회라는 것이 의례히 그런 (정략적인) 자리이니 하루, 길면 이틀만 버텨라. 양심이나 도덕이나 하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고 (거짓말까지 포함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동원하라. 소위 실용적으로 말해서 도덕이 밥 먹여주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의미인 것 같다.

가정부의 사회보장세를 내주지 않아 946달러(약 120만원)의 과태료 미납으로, 그것도 14년 전의 ‘아주 사소한’ 일로 불려난 미국의 사례는 ‘각박한 사례’로 표현한다. 각박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이다. 이 책에게 법과 원칙은 때로는 각박하고 때로는 사소한 것이다. 인건적이지 못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장전임이니 탈세니 하여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반역적 표현으로 비판하는 글이 아니다. 이 자의 글을 보면 예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좌파들이 자주 사용하는 선동의 수단과 많이 닮아있다. 이례적이고 확률이 희박한 사례를 가지고 그것이 전체를 대변하는 성격으로 규정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로 글을 써내려간다. 읽다보면 그 희박한 확률이 전체, 즉 참(眞)이 되어 있는 것이다.

원회를 최고의 말대로 “~MB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던 것은 이념이 아니라 잘 사는데 최고라던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세상에 위장전임이고 탈세고 하는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도덕성 따지는 것은 너무 ‘각박한’ 일이라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 1000만 원 정도를 적은 돈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표현할 정도이면 ‘바늘도둑’ 정도는 벗어났다. 喬龍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은 하였으나, 그 래도 이무기 정도는 되는 줄 알았다. 뚜껑 열어보니 지렁이였더라는 것이다. 1.7%의 지지율, 1.7X3=5.1이니 곱하기 3을 해도 정몽준 대표의 지지율인 5.2%에도 미치지 못한다. 5.2X6=31.2이니 곱하기 6을 해도 32.4%인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 가져가는 불씨라도 삼려보려 애쓰는 조선일보와 최보식 같은 자의 노력이 애치르기까지 하다. 물론 이렇게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겠지~

현재 한나라당 대표는 정몽준이라는 사람이다. 또 다른 직책은 현대 중공업 회장이다. 현대는 과거 IMF당시 DJ정부로부터 33조 6000억이라는 공적자금을 받았다. 이후 급감원 국정감사에서 23조 8761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아마 현대그룹이 정주영 명예회장 사후 공중분해 되면서 그 자금들의 성격들이 애매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법체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현대그룹이 빌린 돈이니 지금은 그런 그룹은 없다는 것이다. 고차 방정식으로 풀기 어려운 내부 거래 등으로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소도둑’들이다. 서민들은 단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에도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돈을 갚기 전에는 금융거래를 포함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곳이 대한민국이다.

말 많은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2조라고 하니, 23조가 넘는 현대그룹에 회수할 돈만 회수하여도 추가 국가예산 안 들어도 가능 하겠네~ 좀 알고 넘어가자! 23조가 넘는 돈들이 어떤 돈들이고 그 돈들을 왜 어떤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한지 알고나 넘어가자.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 그 자체이다. 국민들은 자세히 알 권리가 있다. 23조이니 사소한 일도 아니고 10년전에 빌린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각박한 요구도 아니다. 23조이면 4대강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돈인가? 이 돈들은 국민들의 부채 항목에 갚아도 갚아도 없어지지 않을 빚으로 남을 것이다.

현대그룹에 제공된 돈 중 대부분이 현대건설에 들어갔다. 현대건설은 MB를 대통령으로 만든 신화(?)를 만들어 낸 회사 아닌가? 전신 현대그룹은 現 한나라당의 대표가 회장으로 있었던 회사 아닌가? 야당에게는 더 없이 좋은 공격 수단인데도 좀 먹은 병어리들이다. DJ정부가 제공한 이 돈의 일부는 DJ의 노벨상을 수상하는데 일조를 하였느니 현 야당인 민주당이 입 닫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보식, 이 책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법이니 원칙이니 도덕이니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신문에 있어 칼럼이나 사설은 그 신문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다. 조선일보이고 고정 칼럼을 가지고 있는 선임기자의 글이니 조선일보가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있는 글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앞에서 끌고 언론들이 뒤에서 밀고 하여 국가의 도덕지수를 끄집어 내리는 전국각적 국민정신을 개조시키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출처: 애국애족포럼, 반딧불이 논객)

(재)사랑과행복나눔 ‘사랑의 선물 상자 보내기’ 행사



지난 9월 23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재)사랑과행복나눔(이사장 조용기 목사) 주최로 ‘추석맞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위한 사랑의 선물 보내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조용기 원로목사, 이영훈 담임목사가 참여해 750여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선물을 직접 포장했다.

선물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추석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고추장, 식용유, 간장 등 5000만원 상당의 12가지 식료품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담임 장창수 목사

부목사	전	정	우
인수집사	유	외	내
	경	우	내
	조	내	외
	재	외	내
	방	내	외
	목	내	외
	사	내	외
	장	내	외
	로	내	외

말씀으로 무장화!
기도로 능력화!
생활로 향기화!

447-140 경기도 오산시 결동 651-1
Tel: 031)373-1151, 377-9372
FAX: 031)372-2583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041)634-0441 (사무실)
041)633-9146 (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혁신적인 말씀축복 [전도집중 말씀집중 독서집중] 특별집회

부흥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집회특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특징

- ♡ 확실한 동기부여
-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주관: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041)904-0675
011-9119-7661(특통)

전국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 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된 기도로 준비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읽는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석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김동락 목사



문의: 031) 968-0199
교회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9번지

건강칼럼

지난호에 이어

우울증은 결코 정신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김주원 박사
본지 상임운영이사

현대에 존재하는 많은 정신과적인 질병이라고 명명되어진 정신심리적인 병명중에서 가장 흔하고 흔한 것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다. 정신과적인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사람들을 정신분열증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분류하여 정신분열증이라고 병명을 옷에 붙이는 라벨처럼 붙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상태 혹은 몸의 상태등의 관찰로 우울증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또는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스스로 우울증 경험한다고 하는 개개인들의 고백이나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진단을 한 후 우울증이라고 판단을 하여 그 카테고리로 몰아가서 밀정된 사람을 우울증이라는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정신과나 신경의 학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정신병자로 분류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처방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지면을 할애하여 정황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많은 정신과적인 우울증의 이론들이나 학문적인 체계들이 완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가설로서의 생각들이거나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는 외국의 학문 이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서나 문화 혹은 가장 사회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결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외국학문의 수용은 말할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학문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프로이트계통의 심리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Psycho나 기타 심리학의 아무에서 파생한 오래된 책들을 번역하여 그 이론적인 증거를 배경으로 삼거나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환자들을 다룬다는 것

이다. 그 흔하다 흔한 성적인 학대(Sexual Abuse)의 예가 한국인들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아동기의 성적인 학대 (Childhood Sexual Abuse)나 기억 (Past memories)을 통한 치료를 지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기 혹은 더 발달되어진 아동들의 엉덩이를 툭툭 때리면서 예쁘다고 하는 것이나 혹은 이웃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동의 불이나 기타 신체부위를 살짝 꼬집거나 만지면서 예쁘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한국의 문화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예전에는 심지어 미취학 아동의 아래 바지를 입히지 않은 채 놀게 하기도 했고 어른들이 많이 컸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식기까지 만지곤 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적인 상황을 외국의 이론과 서적에 대입시키다보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아동학대 혹은 성추행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아동들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현재에 정신 분열 혹은 장애 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병을 만들어 냈다는 허

무명량한 말들을 하는 정신과의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적인 환자의 경험이나 혹은 자신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들에 대해 책에서 답습한 것을 적용하고 또 환자들에게 그렇게 기억하도록 만들으로써 잊지도 않은 정신병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예전 가난한 시절에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밤 늦게 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만약 외국의 정신의학서적이나 프로이트계통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본다면 현재 한국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병이나 우울증 등은 아동기의 성적인 학대나 유아기 시절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혹은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이미 서양이나 서구의 사회나 학문에서는 없어진 학문의 분야들을 문화나 정서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행위들은 한 나라의 정신건강을 파괴하게 만드는 신중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서양의 정신의학이 진화론이나 기타 유사 심리학 또는 뉴에이지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상들이 사람들을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진화론체 혹은 생물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상가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불안정이나 정신적인 불안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병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병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 현대의 한국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상담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책이나 기타 자료들을 통하여 [현대인들은 누구나 약간의 혹은 한 두 가지 이상의 정신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환상적인 최면이라도 걸린 듯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말을 수용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는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정신과의사들이나 심리상담자들의 말을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 마음이 많이 씁쓸하지만 하다. 현대인들이 누구나 한 두 가지 이상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의아한 것은 정신과의사들이나 심리상담자들은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대인들이라는 범주에 자신들도 들어간다면 정신병자가 정신병자를 치료한다는 우스운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나는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의사입니다. 내 병인 정신분열이라는 병은 고칠 수 없고 당신이 앓고 있는 우울증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 병을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섣불리 자신의 문제를 내

어 맡기겠는가? 흔히들 환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 고려해 보지 않고 자신들을 맡기는 경향이 있다. 알코올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를 다룰 때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병원 밖에 나가서 진탕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찌 환자를 맡길 수 있는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급원에 관한 교육을 하러 온 강사가 강의 시간에는 급원교육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잠깐 나가서 담배 한대 피우고 들어와서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인가? 이와 비슷하게 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정신과의사가 비슷한 종류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이나 혹은 의학을 다루는 서적에서 검색을 한 결과를 자세히 읽어본다면 그 결론은 자명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어느 검색이든 검색을 통해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라고 검색을 하고 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두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누구 하나 딱 부러지게 이렇다고 말하는 의사나 학자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같이 이러 이러한 원인이 있고 이러 이러한 악을 쓰면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처방이나 원인들을 분석 한 다음에 환자가 그러한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환자들은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상담원리 ⑩ 상담과 신뢰

내담자 : 남자친구가 수업시간이 끝나고 저한테 인사 한마디 안하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려서 라고요. 확실히 제게 관심이 없나 봐요.
상담자 : 진짜 관심이 없는데 확실하다면 뭐가 문제죠?
내담자 :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상담자 : 어떤 점에서 자존심이 상할까요?
내담자 : 저를 거절했으니까요.
상담자 : 그 친구가 지금 OO씨를 거절하게 확실하다면 그제 OO씨에게는 왜 그렇게 힘들게 되죠?
내담자 : (한참 후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학생이 나에게 호감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내게 호감이 없다는 건 아니죠?

이 글에서 내담자는 남자 친구와의 신뢰관계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쌓는 일이다.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대화가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좋은 대화 나누기의 원칙을 정리해 보자.

첫째, 얼굴표정이나 목소리와 일치되는 말을 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청소년에게 말할 때 그의 성품을 규정하는 '너는...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너는...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넷째, 생각이나 기분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때 '너는....' 이 아니라 '나는...' 으로 시작하는 말을 사용한다.

다섯째, 청소년에 대한 불만이야 상담자의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상담자의 기쁨과 행복도 자주 표현한다.

자존심이 상한 여학생의 고민

조경일 교수
· 백석문화대학
· 본지 논설위원

여섯째, 어렵고 추상적인 말로 막연하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쉽고 명확한 말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일곱째, 상담자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대화를 끝내기 보다는 상담자의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들어본다.

무엇보다도, 넓게는 가정세대와 청소년 좁게는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길을 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의 대화가 가쳐있는 대화가 되고 상담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열왕기하 5장32조)에 이스라엘 주변국가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다. 이 사람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 영웅으로서 아람국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장군인데 그만 나병(한센병)에 걸리게 되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와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면 깨끗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났지만 장군의 부하들이 권유하고 있고, 자기 자신도 나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단 한번의 대화도 없었지만 생각을 돌이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고 깨끗이 나왔다. 그것도 마치 어린아이의 과부처럼 고맙다.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이다' 열왕기하 5:15라고 엘리사에게 되돌아가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대면도 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믿음(신뢰)을 가져야 함을 알려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해 보지 않고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나아만 장군 역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행한 뒤에야 비로소 엘리사를 인정하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옛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절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유족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신5:12-14)

고대 이집트 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15세기에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영적, 도덕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사회건강 및 개인 건강의 차원에서도 탁월한 법령이었음에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안식일 준수에 계명은 당시 유대민족이 복수를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종교적 표준으로 제시되었는데 바로 여기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당시는 노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노예가 일주일 하루를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노예의 정기적인 휴식은 그만큼 생산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재없이 계속되는 노예의 혹사가 결국은 급격한 체력쇠퇴와 함께 조기 사망을 가져 온다는 장기적인 안목은 없었던 것 같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고용주의 탐욕 때문에 노사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적용대상자에 남종과 여종을 포함시키고 아울러 안식일 준수의 명령에 절대성을 부여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막2:27)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 ⑫

휴식은 조금씩

자주하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할 뿐 아니라(창2:3)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끝없는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는 안식일 기능도 중요하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근로명령"과 함께 "휴식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 두가지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성공하려면 잘 일하고 잘 쉬어야 한다. 힘을 재 충전할 수 있는 적절한 휴식없이 생동감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으리라. 건강의 비결도 마찬가지다. 건강하려면 일과 휴식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능력있는 사람이란 자기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다. 일과 휴식은 나뭇배를 저어가는 좌우편 노와 같다. 푸르른 창공에 비상하는 독수리의 양 날개와도 같다. 강력한 추진력을 얻으려면 양쪽에 동일한 비중을 두는 균형잡힌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무조건 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휴식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휴식은 조금씩 자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몸을 노예처럼 부린 후 한꺼번에 취하는 휴식은 오히려 소모적,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쉰다는 것이 반드시 누워있거나 무릎 무상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좋은 휴식일 수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경우 등산이나 운동이 최고의 휴식이 되기도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 조금씩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일 줄 모른다는 점이다. 휴가 중에도 직장에 계속 전화를 걸어 업무를 챙기는 사람.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 여행의 코스에만 신경쓰는 사람... 이들에게 진정한 휴식은 얻어질 없다. 건강에 좋다는 운동의 경우도 승부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다. 조금씩 휴식에겐 휴식이나 오락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셈이다. 어떠한 경우도 휴식은 조금씩, 자주 취해야 한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가속이 붙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런 때에라도 스스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라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장거리일수록 천천히 출발하듯 일이 많을 때일수록 휴식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휴식이란 몸과 마음의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쪽의 휴식은 휴식일 수 없다. 인간의 진정한 안식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이루어 집도 때문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6)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김지어라. 여호와께서는 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역대상 28: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말씀이 옹하는 교회(눅 4:21)
오직기도, 오직전도, 오직예수, 오직믿음

하나님이...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교와약도

신천동 (주)세텍 시청사점 소래중학교 수인산업도로 은행단지 APT단지

다니엘교회
은행동 250-1

교회 031)313-3464, 312-26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 (Bishop)
 -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수련원
유치부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성전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성전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 병 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금요철야: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선교교회

부천대학 시청사점 소래중학교 수인산업도로 은행단지 APT단지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구원론 ⑤ 예수님의 보혈



담임 현 병 우 목사
· 임마누엘선교교회
· 본지 부사장

모세의 명한 예물

(마8:1~4, 막1:40~44, 눅12~14, 눅17:11~19)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기본이며 또 모든 것이 될 수있는 1단계 구원론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받았 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핵심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 의 보혈을 아는 은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 없는 구원은 없으며, 보혈 없는영생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예수 님의 보혈을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 택 함받은 자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진리로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더욱이 영육간에 많은 억압과 질병 불치의 궁핍가운데 고 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상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줄기 진한 피의 강이 흐르는 데,이 피는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며,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자의 구원이 되시며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약한것을 강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자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보혈만이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사랑이십니다.

마8:1~4(1)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 으니라2)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4)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에서 어느 정도의 불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온듯한

한 문둥병환자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 은 메시아, 온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나왔는데 특히 마 20:29,34, 막10:46~52, 눅18:35~43에 소경 디매오의 아들 바 디매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외치 며 주님을 다윗의 뿌리로 오시리라한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왔는데,이 문둥병환자는" 주께서 저를 원하시면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말로 약간의 불신앙을 갖고 나 온듯 보이나, 실상은 이 사람이야말로 모세로 예언되신 구세주 로서의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율법을 어겨서 모세로 받은 율법의 모든 저주중의 저 주라 할 수 있는 문둥병이 걸렸으나 율법과 율법에 예언된 예 수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온전히 알고 있었기에, 주께서 원 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 드릴수가 있었습 니다. 즉 메시아로 이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위하여 받으실 주님의 고난, 우리 죄의 대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 의 완성의 숫자인 일곱 번 피를 흘리실 예수님을 믿고 나아왔 다고 말씀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 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하심으 로 화답하시고 그에게 인수 하셨을 때 그에게서 문둥병이 즉 시로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으며, 깨끗함을 받은 그에게 말씀 하시되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신 말씀에 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그가 율법과 율법에 예언된 예수 그 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온 믿음을 볼 수 있으며, 주님께서 그 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며, 율법에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까지 알고 나아왔다고 인정하셨음을 알 수 있겠 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4복음서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악귀 들려 억압 받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소경 및 각색 질병 고 통 걸린 자들을 치료해주시신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제 사자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신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 며, 결코 어느 경우에도 단 한번도 없었으며, 유독 이 문둥병 환자에게만 말씀하셨고, 또한 눅17:11~19에 열병의 문둥병 환자에게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깨끗케 됨을 인하여 저 희에게 증거하라 하신 말씀은 없으셨으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는데 유의하여야 하겠으며, 제사장들과 모세 의 명한 예물과 깨끗케 됨을 인한 증거,이 모든 것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열여주심으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분들과 함께 모세의 명한 예물의 은혜를 함께 받고, 더욱더 주님을 온 전히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레14:1~3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 의 규례에 있는 모세의 명한 예물에 대하여 다음 지면을 통하 여 함께 은혜 받기로 하며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립니다.

작은 행복

칭찬은 몸의 보약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의 학교생활은 엉망이었다. 소년시절의 앙드레 지드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소년이었다. 그는 괴병으로 3주동안이나 학교에 결석한 적도 있었다. 그는 가련할 정도로 겁이 많고 심각한 학생이었다. 그래서 도무지 비전이 없어보이는 열등한 학생에 불과했다. 한번은 학교에서 선생님 이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그저 평범하게 시를 읽었고 앙드레 지드는 감정을 한껏 실어 멋지게 시를 낭송했다. 선생님은 그에게 칭찬해주었다.

"넌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잘난 착한 학생'으로 몰려 왕따를 당했다. 그러나 선생님의 칭찬을 생각하며 문학소년의 꿈을 키웠다. 사람은 누구나 약 점이 있다. 특히 청소년은 미완성 교향곡이다. 지휘자의 '격려'와 '칭찬'이 명곡 을 만든다.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말은 청소년의 꿈을 갇아먹는 쯤벌레와 같다.

포토샵강의

어도비 포토샵의 기본편



1. 포토샵의 화면구성과 이미지 불러오기 및 저장하기
2. 포토샵의 공구합인 '툴박스' - 보정작업의 기초 '선택툴'
3. 포토샵의 공구합인 '툴박스' - 일곱의 여드름과 잔주름 지우 기의 답인 '힐링 브러시 툴'
4. 포토샵의 공구합인 '툴박스' - 포토샵에서 글자도 쓴다 '텍 스트 툴'
5. 이것을 모르고서 포토샵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 - '레이어'
6. 어떻게 촬영된 사진을 밝게 보정 - 'Curves'
7. 옷을 갈아입히자 - 'Hue/Saturation'
8.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려면 크기를 작게 하자 - 'ImageSize'
9. 효과를 주면 사진이 바뀐다 - 'Blur'와 'Sharpen'
10.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기본 과정

①블러(blur)

블러는 초점이 맞지 않아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 현상을 이 용하여 포토샵에서는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 툴박스에 블러툴 이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해 본다. Filter > Blur 에 보면 11개의 다른 효과가 있다. 많이 사용하는 가우시안(Gaussian)블러를 사용하고하자 한다. - 이미지를 연다 - 툴박스에서 원형(Elliptical Marquee) 선택툴을 선택하고 상단 의 옵션바에서 Feather 값을 200px로 설정한다. - 수치를 크게 할수록 부드럽게 효과가 적용되므로 수치를 어

려면 적용시켜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최대값은 250px이다)
- 눈 주위를 선택한다.
- 눈 이외의 부분만 흐리게 보이도록 하고자 한다.
- 메뉴바 > Select > Inverse를 클릭해서 눈 이 외의 부분이 선택되도록 선택반전을 한다.
- 메뉴바 > Filter > Gaussian Blur 를 클릭하 면 대화상자가 뜨는데, Radius 값을 8 pixel 정도로 한다. 하단의 슬라이드를 움직여도 된다.
- 이미지가 클 수록 값을 크게 해야 효과가 보인다.
- Ctrl + d를 눌러 선택해제 한다.

②샤프(Sharpen)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할 때,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면 원본과 달리 약간 소프트 해 지는 경향이 있다. 잘 찍은 사진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소 프트해 지면 속이 상하기도 한다. 이때 필터의 샤프를 사용한다. 이미지 수정을 할 때 밝기 조절, 채도 조절, 이미지 사이즈 조절 등을 한 후 마지막에 샤프를 한다. 항상 마지막에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한다. 경험상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1) 이미지를 연다
- 2)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하며,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한다. - 메뉴바 > Image > Image size에서 resolution : 72 / Width : 850 / OK 버튼 클릭
- 3) 메뉴바 > Filter > Sharpen > Unsharp Mask 선택
- 대화상자 안에는 미리보기 창이 있다. 인물사진인 경우 눈이 가장 중요하므로, 미리보기 창에 눈이 보이도록 하고 샤프니 스를 조절한다.
- 일단 Amount 값만 조절하기로 한다. 다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도록 한다.
- 슬라이드를 좌 우로 움직이면서 선명해 지는 차이를 비교한다.
- 너무 많이 해서 경계면(예 : 얼굴 피부와 머리카락의 경계면) 이 갈로 끊어진 것 같이 보일 정도로는 하지 말자. 이미지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게 된다.
- 4) OK 버튼을 클릭하고 빠져 나온다.

한국기독교사진가협회 사진전문위원 정 일



짧은글 인생각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시하므로 인해 큰 복을 놓치고 말았다. 오늘날 많은 그 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복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 현재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다. 영적인 일 보다 물질적인 일들, 천국보다 세상의 일들, 영원한 세계보다 현세의 일들 더 중요시 한다.

영적인 일에 대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혹은 "영적 특권이 내게 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인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의무와 복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일들' 곧 '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설 때에 친구가 찾아 올 경우, 걸려 오는 전화' 등은 충분히 뒤로 미루어도 될 일인데도,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친구를 만나는 일이나 세상일 에 쉽게 따라 간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별로 중요치 않은 일로 인해 미움과 시간을 빼앗긴다. 영적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린다. 세상의 분주한 일로 인해 기도를 양보하고 영의 양식을 소홀히 한다면 영적 생명이 갈증 을 느낄 뿐 아니라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왜 포기하는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양보하는 것은 불행 중에 큰 불행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육신의 어떠한 회생을 치르더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귀하 게 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며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리라. "아름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여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아람에게 판지라. 아람이 꾀와 팔죽을 여서에게 주매 여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 으니 여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감이었더라" (창25:33~34)

세상에서 제1의 소중한 것

함박재 가시오갈피 농장 무료체험단 모집

◆ 전국 교회에 드리는 ◆
인사의 말씀



회장 정 수 영 목사

이 신문을 보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실 모범적인 믿음의 기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미골 영농법인 조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선 교회를 후원하는 업체로서 선교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장애인과 불우한 노인을 위하여 제품 판매 이익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09. 10.

실로암선교회

회장 정 수 영 목사
H.P : 017-722-7334



일터사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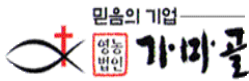
▣ 전국 지사 및 대리점 모집 ▣

- ▶ 당사는 국내산 가미골함박재가시오갈피와 외생흑 미늘 농축추출 제조원 가미골영농법인으로써, 사 세확장을 위한 전국지사 및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 ▶ 개천교회 남, 여전도회 사역자분들과 성도 여러분 들의 자비한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70-8244-7525~8
- 실로암 선교회 : 070-8244-7528

믿음의 기업 가미골은 고객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 보령혈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내 최초로 인정 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1호입니다. 개별 인정형 제품: 보령혈통 혈통은 심장질환과 혈관화 장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 독점 제 품입니다.
- 농장견학체험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높 이고져 힘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최신 대형바스(45인승 리무진)조식, 간식, 중식제공, 는산가시오갈피농장 견학, 관광지 탐방, 온천욕 등을 제공해드립니다.
- 농장체험단 일정은 매주 월, 화, 목요일날 출발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교회빌딩 1010호 TEL : 070-8244-7525~8 / FAX : 02322-6613
홈페이지 : www.gamigol.net E-mail : gamigol@nate.com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 광 교 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비 고
새벽7교회	0일 새벽 5:30	본 교	성경강해
주일1교회	주일 오전 7:30	본 교	
주일2교회	주일 오전 10:00	본 교	열대예배
주일3교회	주일 오전 11:30	본 교	
주일4교회	주일 오후 2:00	본 교	특별예배: 코돌릴 수 있음
주일5교회	주일 오후 4:00	본 교	청년예배
수요7교회	수요일 오후 9:00	본 교	청년2교회
각구역교회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구역교회	마을 디지털주는 은혜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 간	장 소	대 상
유 치 부	주일 오전 11:30	본교 지하 1교관	취학전 아동
유 니 부	주일 오전 9:00	본교 지하 1교관	초등학교 1~3학년
소 니 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 등 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국중원
고 등 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학생 및 동국중원
청 년 2 부	주일 오후 4:00	본 교	19~24세 미혼
청 년 1 부	주일 오후 4:00	본 교	25세이상 미혼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9-10
TEL. 031-384-6826

서울예일신학
(사명자 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에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운영

www.syeil.com

전 화 02)2293-0045
H · 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010-7405-9191

대구 냉수 한 그릇 선교회 창립 10년

후원금 1억 226명 지원...



냉수한그릇 선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3월 대구 화원동산에서 칠레회 겸 밀알수련회를 가졌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 하리라"(마 10:42)

목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나 질병을 돌보고,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를 돕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펼치는 '냉수 한 그릇 선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4000여 개 교회에 1만여명의 목회자가 목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작은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 성도들이 거둬주는 사례비로 생계는 유지한다 해도 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자녀들 학비조차 내지 못하기도 한다.

1999년 8월 박삼수 대표회장(대구예일교회 담임목사) 등 뜻있는 목회자 7명은 이런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돕자는 취지로 선교회를 출범시켰다. 선교회의 시작은 10여년 전 대구 인근 작은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박 목사 개인의 경험에 발판이 됐다.

선교회는 박 목사의 열정적 노력으로 이제 회원 600여명의

초교과 모임으로 우뚝 섰다. 지난 10년간 1만~2만원씩 모인 후원금만 해도 1억1000만원이 넘었고 그동안 선교회의 도움을 받은 목회자는 226명에 이른다. 회원들은 요즘도 신간 오지 교회를 마다않고 달려가 열정적인 선교 활동을 펼친다.

회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를 찾아내면 후원금 중 10만~50만원을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듯 우선 지원한다. 그러면서 목회자 가족의 힘든 사연이나 후원금 접수 상황을 매월 발간하는 선교회보에 자세히 실는다.

선교회는 최근에도 갑작스러운 병마로 사경을 헤매는 목회자의 사연을 방송국에 전해 후원금 1500만원을 모아 전달했고, 중병에 걸린 목회자 자녀를 위해 300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선교회 회원들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몸이 아픈 목회자를 대신해 전도 활동을 도와 주기도 한다.

10주년을 맞은 선교회는 올해 송재철 성일교육재단 이사장의 후원으로 대구 대신동에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했다. 박 목사는 "앞으로 목회자들의 자립을 돕는 지원 활동은 물론 은퇴 목회자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할 수 있는 안식관을 건립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기총 부흥사협의회 전국교회 사모 세미나 가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흥사협의회 주최로 전국교회 사모 무료 세미나를 청주 진주초대교회 제2성전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한기총 부흥사협의회는 첫날 상임부회장 장창윤 목사(웨신총회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사회로 시작된 집회에 부회장 이옥화 목사가 기도를, 부회장 한영희 목사가 성경 봉독을, 회장 윤호균 목사가 "성경적인 사모"라는 제하의 말씀을 증거했으며, 총무 배진구 목사가 광고를 하고, 상임부회장 박만호 목사가 축도를 했다.

한기총 부흥사협의회 회장 윤호균 목사의 말씀 증거로



시작된 전국교회 사모 무료세미나는 9월 7일부터 3일간 사모들과 함께 은혜가 풍성한 집회의 현장이 되었다. 주 강사로는 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 회장 윤호균 목사(화광교회)가 맡았다.

The Jesus Times
www.JTNTV.kr

평양 과기대, 조용한 준공식

남측에서 20명만 준공식에 참석하여...



▲ 컷팅을 하고 있는 인사들(사진 정주채)



▲ 본관건물

지난 9월 16일(화) 오전 9시30분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준공식이었다. 애초 남측에서는 700명이나 참석을 신청할 정도였지만 북한 댐 방류 사건

등으로 인해 정부(통일부)에서 20명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대폭 축소된 인원만 방북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북측 인사 외에 모두 120여명이 참석했는데 외국인 30여명을 뺀 남측대표들은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참석하였다. 건축비만 400억이 들어간 큰 남북교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관계로 기자 한 사람 들어

가지 못했고 국제적으로 빅뉴스가 될 만한 행사가 조용히 치러져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건물은 가장 현대식으로 건축되었고, 설비도 가장 최상의 것을 갖추었다. 북한에서는 추운

독일개신교회 대표단 방한...희망과 계속적인 교류 통일 만들어



한반도에 분단이 종식되길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방문에 앞어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운영하거나 해외 기독교 단체가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구호와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방문했고, 더불어 비무장지대 방문과 평양봉수교회에서 연합예배도 함께 개최했다.

특히 대표단은 북한의 신학교를 방문해 신학교육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고, 아울러 독일 세계선교국과 세계 봉사국을 통해

인적, 물질 자원을 북한에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볼프강 후보 대표는 '통일을 위한 남북 교회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이 그려왔듯, 희망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협

력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넓혀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독일교회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계교회에 한반도 통일 문제를 환기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중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성장과 대외교회 현상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고, 독일 유학 출신의 신학자들과 '한국과 독일교회 간 파트너십의 전망' 그리고 '사회·정치적 상황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선교'에 대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신대학교와 한신대학교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등을 만나는 등 다양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EKD는 루터교, 개혁신교(장로교), 연합교회 등 독일 22개 교구 교회의 연합체로 2500여만 명(독일 인구의 약 30%)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는 1981년부터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7년마다 한·독 교회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조선그리스도교 연맹과는 1989년부터 교류해 왔다.

자료제공 Kncs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남부노회



웨신총회 제94회 성총회를 축하합니다



총무 신언창 목사



부서기 조광표 목사

남부노회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74-1808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제94회 성총회를 축하합니다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담임목사 조광표 외 교우일동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 061)242-1617

논단



박영남 목사

무천 새이침 장로교회 담임
건국대학교 선교아카데미 교수
시인, 문학평론가

‘추수의 계절’ 가을을 생각한다

성서에는 4종류의 밭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는 장마도 길고 더위도 긴 여름이었다. 사람들은 건디기 힘들어도 들만에 곡식들과 과일들이 익고 결실하는데는 아주 좋은 날씨다. 성서에는 30, 60,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는 어떤 밭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있다.

첫 번째 밭은 길바닥이다.

중동지방의 길바닥은 거의 모래사막 아니면 암석 바위다. 여기서는 바위를 이야기 한다. 암석 바위같은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지면 사람의 밭에 밟히지 않으면, 들쥐나 새의 밭이다. 물기하나 없는 암석위에서 싹이 날리가 없다. 거기 떨어질 자체가 죽음이다.

두 번째 밭은 자갈 밭이나 모래 밭이다.

두 번째 밭이 자갈밭이라는 의미는 암석 바위가 수십 만 년 풍화에 쪼개지고 부서져야 자갈이 된다. 그리고 이 자갈들이 수 만년 수 억 년이 흐르며 부서진 것이 모래밭 사막이다.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물기없는자갈 틈이나 모래 사막에서 밤이슬 맞고 싹이 난다 해도 햇볕이 나면 말라죽고 시들어버린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이다.

가시덤불은 중동지역의 환경이 바위 암석 아니면 자갈이고, 그것도 아니면 모래사막이고 그것도 아니면 푸른 풀 한포기 없는 산비탈 따른 가시덤불이다. 여기에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서 자라봐야 가시덤불에 얽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네 번째 밭은 옥토good soil다.

옥토는 빗물과 수분을 오래 동안 품기 때문에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하며 꽃과 잎과 열매를 맺어 결실하게 한다. 옥토good soil는 바위가 수 만년 깨어져 자



갈이 되고, 수 억 년을 깨어져 모래가 되고, 수 십 억년 깨어지고 몽그러져야 먼지 같은 옥토로 ? ʼ穢ʼ 성서에서 말씀 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4 종류의 밭<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옥토good soil>은 우리 '인간의 심령의 밭soil of heart' 을 의미한다. 하늘에서 아무리 단비가 쏟아져도 그 빗물을 받아 품을 수 있는 심령의 가슴이 준비되지 않으면 쏟아진 빗물은 흘러가 버리고 만다.

옥토good soil가 되어 말씀의 씨앗,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 자라나게 하고, 꽃피우고, 잎 피워 열매 맺어 결실하게 하려면 먼저 전제조건, 선행조건이 우리의 태 마르고, 완악한 심령 밭이 수 없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몽그러져, 먼지! 처럼 되지 않으면 불과 생명을 품어 기를 수가 없다. 긍휼정신의 산고다. 긍휼은 헬라어에 라헬, 어머니의 자궁, 산고 신통을 의미한다. 한 생명을 낳기 위해 어머니는 죽어야 한다. 우리의 심령 밭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품어 길러낸다는 의미다.

우리들의 가슴이 진정 옥토인가. 이웃과 사회와 세계를 내 가슴에 품고 양육하고 길러낼 어머니의 산고 정신을 가졌는가? 우리는 가을에 탐스럽게 익은 열매는 따려고 하

면서 봄철에 한 개 씨앗이 되어 땅에 묻히려 하지도 않고, 씨앗을 품어 기를 만한 옥토의 가슴도 준비되어있지 않다.

오는 날 우리 교회와 목회자 들이, 성도들이 산고 없는 열매를 기대하는 기복신앙에 젖어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 되어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연어는 씨앗이 되어 죽으려고 돌아온다

이 가을은 소백산줄기 남대천에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5-6년 전에 작은 치어로 남대천을 떠나 태평양으로 나아간 연어 새끼들이 5-6년 마일의 북태평양을 한바퀴 돌아와 5-6년 만에 어미가 되어 떠나갔던 그 자리에 돌아오고있다.

떠날 때 천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가 살아서 돌아온다. 그들은 살아 남은 자remnants들이다. 종자 씨앗으로 살아남아 씨앗이 되어 죽으려고 고향찾아 올라오는것이다. 남대천 상류에 올라와 알을 쏟아놓고 어미는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 죽는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어미의 시체를 먹고 자란다.

결국 연어의 일생은 씨앗으로 죽기위해 살다가 끝내는 또 다른 씨앗을 남기고 몸뚱이는 새끼를 기르는 옥토가 되어 죽는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만물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에 먼저 땅을 갈아 심으라고, 한 개 씨앗이 되어 땅에 묻히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암석같은 길바닥같은 심령밭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몽그러져 먼지처럼 ㅁ토가 되라고, 산고 없는 열매를 따려는 것은 기복이요, 이단이요, 우상종교요, 가짜라고 엄히 가르치고있다.

두 여인의 눈물의 기도로 가수 태진아 예수를 영접

“골방에서 장모와 부인의 눈물의 기도로 가수 태진아 예수를 영접했다”

가수 태진아의 회개(悔改)

가수 태 진아는 아주 철저한 불교 집인에서 태어나 불교에 젖은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아주 철저한 기독교 집인에서 태어나 아주 철저한 믿음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태 진아 부인은 태 진아가 같이 믿음생활을 하기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태 진아는 가수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름 없는 가수로 밤무대에서 노래를 가창하는 정도에서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태 진아의 본명은 이 광훈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 가지고는 연예인



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름을 예명으로 바꾸고 것을 권유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예명을 지었다.

당시 탈렌트로 이름을 날리던 태 현실에서 성인"태"를 따고 가수로서 이름을 떨치던 남 진에서 이름자 첫 자인"진"을 따고 가수 나훈아의 성에서 이름자 뒷 자"아"를 만들어 '태 진아'가 되었다. 태 진아 부인은 평소에도 태 진아의 믿음생활을 위해 곳곳을 돌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 진아는 마음에 강박하여 그 기도와 권면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불교에 심취된 상태였다.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낯선 신발이 하나 있고 부인은 집에 안보였다. 부인을 찾으며 여기 저기 방문을 열어보는데 한 골방에서 장모와 같이 손을 맞잡고 온연하는 것도 모르고 정말로 눈물 콧물 흘려가며 둘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문을 살짝 닫으면서 조금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 태 진아를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수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과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 더욱 더 좋지만 믿음생활을 못한다고 하

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교회에 같이 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면서 모녀가 둘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목석같은 태 진아도 단 한번만이라도 같이 가게 해달라"며 같이 안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오는 장모 모녀에게 간절한 기도의 보답으로 "다음 일요일에는 내가 교회에 한번은 같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물론 부인과 장모는 또 눈물을 흘려가며 좋아하였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신데 목사님이 "고맙다. 잘 나왔다." 고 인사를 하시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난데없이 장모와 처가 흘리던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지난날에 무질제 했던 생활이 회개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게 되었다.

이른바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그렇게 은혜의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이다.

이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 세상이 그렇게 감사하고 온 마음이 하늘을 나는 듯이 고맙고 기쁨이 넘쳐올랐다. 교회에서 나오면서 본 자기 부인 옥경이는 전에 옥경이가 아니고 완전히 천사 그 자체였다. 그래서 '옥경'이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었고 그 '옥경'이가 히트를 하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23:11)

믿음의 기도

〈눅22:39-46절〉



권세능 목사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서울대학교 (생활체육과장)수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졸업
말씀사명운동본부 대표회장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능목사 약력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몇 분을 데리고 병원에 심방을 가셨습니다. 암으로 투병중인 성도 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권사님들이 큰소리로 아멘 믿습니다. 주여! 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심방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한분이 옆에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고쳐지기 힘들 것 같지요? 곧 죽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더랍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난후에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응답 받기 전에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는 응답이 오기 전에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앞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나이다."라고 말하니라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하고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응답을 받기 전에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로 병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 병을 고쳐 주셨다. 하고 고쳐진 것으로 믿으면 고침을 받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받는 사람이나 "이제 두고 봐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여러번 기도할 때만 "믿습니다"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하고 응답 받은 것을 생각해야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가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니나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속으로 분통터 여기시며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하시고 돌을 놓게 하신 다음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하고 살려 주셨습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미리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로마서 4장 20절)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물어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 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 하실 것입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나라와 민족 복을 회복을 위해 지역과 교회 을 위해 개인의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들이 살아 날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예장통합, 크리스천투데이 등 5개사 이단(옹호) 언론 규정



▲예장통합에서는 9개 사안에 대한 이단사이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미션

전날(23일) 예장합신 총회에서 설립자 장재형 목사에 대한 '이단의 요소 있음' 판단을 받은 교계신문 <크리스천투데이>가 이번에는 예장통합 총회로부터 '이단(옹호) 언론' 규정을 받았다.

“이단(옹호) 언론이 교계에 더 어려움 준다”

예장통합은 24일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제94회 총회 3월차 회무를 가졌다. 이날 오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유영돈)는 '이단(옹호) 언론에 대한 연구보고서', '장재형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 9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최근 신천지 측 언론인 모 일보의 창간 등 교계 언론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장통합 총회는 5개의 언론을 '이단(옹호) 언론'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들 언론과의 교류 중단을 결의했다.

예장통합이 이단(옹호) 언론으로 규정한 언론사는 <천지일보>, <크리스찬신문>, <세계복음화신문>,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연합신문> 등 모두 5개 언론사다.

이 중<크리스찬신문>과<교회연합신문>은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에 대한 홍보성 기사와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됐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 서기 최삼경 목사는 "이단 자체보다 이단(옹호)언론이 교계

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들 언론과 교류하거나 기고하는 일 등을 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승우 목사 이단규정, 알파코스 등은 이단 논란 종결

특히 이날의 이대위 보고에서는 교계 내에서 끊임없이 이단 관련 의혹을 받아 온<크리스천투데이>와 설립자 장재형 씨에 대한 연구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이대위는 장재형 씨에 대해 "장재형은 통일교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해도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재림주가 아니라고 공표한바 있으나 사이비 이단의 이중적 특성과 어느 한계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점, 세계 도처에서 장 씨를 재림주로 교육 받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볼 때 예의주시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대해서는 "<크리스천투데이>의 법적 대표가 장재형은 아니지만 장재형의 영향 아래 있는 유관 단체로 밝혀졌기에 이들 언론과 관계 맺거나 글을 쓰거나 이들을 돕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위는 "장재형 씨가 설립 또는 지도하고 있는 언론들은 한국·일본·호주<크리스천투데이>외에도 미국과 홍콩의 <기독교일보>등이 있고, <크리스천투데이>기자나 임원들이 만든 <베리타스>와 <아폴로기아>도 있다"며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언론들이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는 '비성경적 기독교 이단'으로 규정된 반면 알파코스와 셀, D12 등은 교회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것을 권고하는 차원으로 결의됨으로써 그간의 이단성 논란이 종결됐다. 변승우 목사는 이날 열린 소속 교단(예장합성) 총회에서 제명·추교 결의했다.

한편 이번 총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현행 70세인 장년을 75세로 연장하는 안'은 참석 대의원 9백87명 중 43명만이 찬성을 해 부결됐다.

14화 잡혀가는 줄 알았던 승용차 도착하니 한국영사관 정문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끔찍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기도가 나왔다. 기도를 했는 데도 엄습하는 공포와 불안은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다. 죽음의 소굴에서 겨우 빠져나오자 더 무서운 죽음의 소굴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그때, 갑자기 귀가 멍해지더니 무슨 소리가 들렸다.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뵈이니라. 네가 너무 고생하기에 내가 너를 직접 데리고 한국으로 가려 한다."

두 눈을 번쩍 뜨고 앞자리 운전자와 옆자리 검은 안경 쓴 남자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 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면 방금 내 귀에 들린 그 소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정녕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란 말인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 귀를 쫓긋 세웠다. 그러나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가 탄 차는 베이징 시내를 경쾌하게 내달렸다. 다시 눈을 감았다. 잠이 들었다.

내가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갔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환영객들이 꽃다발을 건네줬다. 나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하나님 만세! 만세! 만세!"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너무 소리를 질러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주 선생님, 다 왔습니다. 내리시죠." 꿈이었다. 잠깐 졸면서 꿈을 꾸었다. 내가 한국에 도착해서 수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는 꿈이었다. "자, 주 선생님,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중국 주재 한국 영사관입니다." 2002년



주승영 선교사는 국악인 과정을 거쳐 2002년 11월 중국의 한국 영사관에 들어간다. 간중집회 도중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 선교사.

11월4일, 참으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북한 보위부 사람들에게 붙들려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한국 영사관으로 왔으니, 믿기지 않았다. 베이징 역에서 동생들과 함께 타지 않은 게 후회됐다. 그러면 나를 태워준 그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을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려고 보내주신 천사들이라고 생각한다.

"야! 김정숙이다!" 영사관 안 어디론가 갔는데 한 여자가 나를 알아보았다. 성형수술을 하고 세월이 흘러 많이 변해버린 얼굴인 데도 신기하게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30여분간 조사를 받고 한 방으로 들어갔다. 80여명의 남녀가 방에 꽂 차 있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탈북민들이었다.

모두들 평온한 얼굴로 끼리끼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도 평범한 탈북여성으로 처신하며 그들 속에 들었다. 이들은 순서대로 한국으로 갈 예정이며, 나의 경우 석달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았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감사합니

다. 넓고 넓은 만주 벌판에서 떠돌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어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구한 사연들을 털어냈다. 사연들마다 아픔과 슬픔이 범벅이 돼 있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도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북한의 동포를 떠올리며 자신들의 축복에 감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북한 땅, 그 우상의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주시기를 기도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만주 광야와 몽골, 베트남 국경 등을 전전하며 숨한 연단을 겪게 한 뒤 축복의 땅 대한민국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신기하기만 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굳게 다짐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백 종 국
· 기윤실 이사
· 진주기윤실 공동대표

위장전입과 생쥐들의 선택

2009년 9월의 장관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다수의 장관 후보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이었다.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하고 사과했다. 사실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 차명 거래, 재산신고 누락, 불법선거자금 수수, 부동산투기, 병역회피 등의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확립 문제가 되어버렸다. 국방부장관 후보만이 이러한 의혹에서 예외였더니 참으로 명예스러운 일이다.

범죄를 저지른 후보들, 이를 비호하는 정당과 언론들은 당시의 관행이 그러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제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할까? 이들의 주장을 들으니 문득 최근 환경성리학 교과서에서 읽은 존 켈혼의 생쥐 실험이 생각난다. 켈혼은 1962년의 논문에서 미집과 스트레스에 관한 생쥐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밀도 증가로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상황을 '행동난장 (behavioral sink)'이라 불렀는데 쥐들은 그 전의 정상적인 상황과는 매우 다르게 행동했다. 사회적 역할 붕괴와 함께, 과잉활동, 과잉성욕, 동성애, 동족살해 등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이 생쥐들이 동일한 행동난장 하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행동난장에 처한 수컷들의 선택은 다음 네 가지였다. 첫째는 정상적인 쥐들이다. 이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성실히 행했다. 둘째는 과잉성욕적 쥐들이다. 이들은 한때 몰려다니면서 수컷들끼리도 성욕을 해소하려 들었다. 셋째는 무관심한 쥐들이다. 이들은 다른 쥐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고 따라서 후사가 없이 죽었다. 넷째로 '탐색자 (prober)'라고 명명된 가장 비정상적인 쥐들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행동난장의 병리현상은 주로 이들의 행동이었다.

이 연구를 보면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생쥐들도 동일한 인구 압력 하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 인간은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위장전입은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위장전입에 반대하고 있다. 설혹 인구의 2/3가 불법을 지지한다 해도 장관을 선택할 때에는 불법을 행하지 않은 나머지 1/3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불법을 즐기는 네 번째 유형이 지배적이 될 때 그 공동체는 결국 붕괴하기 때문이다. 켈혼 연구의 서글픈 결말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전개하고 있는 'From Me! 위장전입 안하기 1만명 서명운동'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유익하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을 명령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붕괴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당파성이나 이해를 로기는 것허두자. 산불이 나면 빨간 나무만 타고 파란 나무는 남겠는가.

최원수 장로, 선데이축제 전도컨퍼런스 '대성황'



한국도농선교회(본부장 최원수 장로, 사진)는 9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교회부흥에 기여할 일으킬 전도시스템 가을 대 전도를 위한 '선데이축제 전도컨퍼런스'를 개최해 전국에서 참석한 목사, 장로, 평신도 등이 대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강사는 특별강사 박재열 목사(예장대신총회 부총회장, 한국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장, 동선교회 담임), 주강사 최원수 장로(한국도농선교회 본부장), 간증강사 임동호 선교사(일본 요한 요코하마교회 담임) 등이 맡아 각광을 받았다. 이날 최원수 장로는 한국교회의 전도활성화를 위하여 선데이축제 전도컨퍼런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의 초청전도를 개척, 민족복음화를 앞당길 기발한 전도시스템의 핵심을 소개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준비한 교재내용을 가리키며 열강에 나섰다.

최 장로는 선데이축제의 핵심은 매주일 불신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초대교회 전도법을 말하고, 전도는 초대교회처럼 지속적이고, 습관적이어야 하며, 전교인들이 부담 없이 전도할 수 있고, 한국교회

한국교회부흥의 새로운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도농선교회

부흥의 새로운 전도폭풍이 전국을 강타할 것을 믿으며,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외쳤다.

최 장로는 이 전도법이 특별한 것은 매우 초청된 사람들에게 사후관리가 아주 쉽다는 것을 설명하고, 여기엔 정착율이 높고, 교회는 부흥되고, 전국 가는 약도를 제시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초청을 하기 때문에 정착이 쉽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최 장로는 "교회의 본분은 전도요, 교인의 본분도 전도이다. 전도는 가장 큰 일이다. 그러나 교회들의 성도들 중 15%미만의 몇몇 교인만 전도하고, 다른 교인들은 전도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땅에서 100배 복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을 늘려가는 일에도 소외되고 만다"며, "정말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복화는 모든 교인들이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목회라면서, 전도형교회, 전도체질화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전도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강사로 나선 최 장로(사진)는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으로 전국에 130여개의 지회를 섬기며, 18년 동안 현장전도경험

과 1,500교회 전도집회를 인도했으며, 약 1,000교회 목회자들이 담전도할 수 있는 전도법을 강의해 왔다.

선데이축제 전도컨퍼런스를 개발한 최원수 장로는 전도엑스포를 15차에 걸쳐 한국교회에 전도 동기부여와 노화우를 전수했다. 선데이축제 전도시스템은 18년간 최 장로의 현장전도 경험을 바탕으로 전도집회에서 익힌 전도법과 일본에서 전도로 크게 부흥한 일본 요한요코하마교회 전도법, 또한 국내 부흥한 교회의 전도법 등을 집대성하여 개발한 것이다.

최원수 장로는 지난 9월 17일 한국기독교백주년 대강당에서 열린 전도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선데이축제 전도컨퍼런스의 핵심은 "모든 교인이 쉽게 전도할 수 있는 해답이 여기 있으며, 기존의 초청전도의 복잡성을 선데이축제는 단순히 진행할 수 있다"면서 여간 "준비기간이 별로 필요치 않고, 이슬비에 옷이 젖듯 서서히 전도도가 전도자로 바뀌어 전도체질화된 교회로 탈바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도컨퍼런스 특별강사로 나선 박재열 목사(동선교회는 개교회 전도집회 인도, 전도옹 선물지원, 전도교육 실시, 전도 간증인도, 전도세미나, 전도엑스포 등을 주제로 한 국교회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힘쓰고 있다.

축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제94회 성총회

경 천 노 회

"성경 목사(송석교회)를 총회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총대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노회장 장창윤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5동 530-22
☎02)862-3181 노회장 010-5678-9950

축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중앙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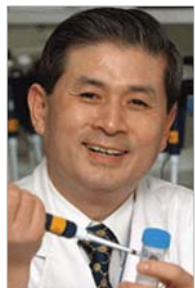
중 앙 노 회

"웨신총회 제94회 성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회장 정일랑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인천광역시 남구 만수5동 883-8
☎032)467-3738 010-3733-9887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개를 희망하는 기독교인이 성명서를 남기고 탄원서를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10월로 예정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기독교 지도계층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도록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목사·장로 1,000여명과 일반신도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탄원서 서명내용의 주요 골자는 "4년 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과학자로서 자신의 연구역량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 지도층의 입장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위해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는 황우석박사의 과학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개를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황우석식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고, 국내에서도 차병원이 줄기세포 연구 자격을 부여받으면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생명윤리적인 장애가 제거된 계기가 되었다.

행사관계자는 기독교 지도층이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서명에 참여한 계기 중에 고 강원용목사의 기고문에 동참한 분이 많다고 말했다.故 강원용 목사의 동아일보 기고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덩어리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과, 난치병으로 고통 속에 사투지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 불 중에 어는 것이 더 윤리적인가"하면서 진정한 생명윤리를 지적했고, "아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황 교수가 연구실을 오래 비우

목사·장로 1000여명, 황우석 박사 탄원서 법원제출

기독교 지도층이 황우석박사 탄원위해 일어서다



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면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실천행위라고 언급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이 8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일에는 대한민국 개국 이래 최대 규모인 110만 명의 서명자가 황우석 박사의 탄원을 위해 제출했다.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기독교 단체에서 황우석 박사를 위한 탄원서 제출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기독교 지도층이 황우석 박사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탄원 여론이 붓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 탄원을 위한 기독교인 호소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기독교인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위한 휴머니즘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허

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황우석 박사는 난치병 환자를 위한 숭고한 정신으로 연구에 매진하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포용과 사랑으로 황우석 박사에게 관용을 베풀어 기회와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진실과 줄기세포 논쟁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논문상에 나타난 데이터 오류가 있었다더라도 줄기세포 기술만큼은 확신을 하였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만 주면 다시 재연구하겠다"라고 대국민 호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황우석 박사가 원천기술이 있거나 과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재연구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후, 3년이 넘는 재판과정을 통해 황우석 박사의 진실을 알게 되어,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느낀 나머지 저희 기독교인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월간조선의 황우석 공판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대 정명희 교수는 '체세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내생식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흥분된 나머지 그리 되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나옵니다. 또한, 서울대조사위의 보고서가 이중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비공개 원본보고서에는 체세포생식이 아닐 가능성이 대한 평가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결국, 김선종의 섞어심기(바꿔치기)로 인해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대 조사위는 체세포생식 여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실험도 없이 성급하게 체세포생식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100여개의 배반포를 확인하고도 원천기술 존재여부보다 줄기세포 확립여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세계 최초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핵치환기술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려 황우석 박사가 사기꾼으로 내몰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충북대 정오배 교수팀과 해외 연구팀에서 실시한 NT-1의 검증결과와 체세포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가 맞다는 검증실험 사실과 세계최초 돼지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어 독자적인 배양기술까지 확보하였다는 연구결과로 본다면,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과학적 역량과 원천기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우석 박사의 국제특허 획득을 위해서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개는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의의 양심인 재판장님 !!

사법부 인사말에 "국민을 섬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며 모든 가치의 척도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에 대한 다수여론조사는 종교와 정치상황 그리고 지역과 연령을 초월하여 8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되고 각종 규제가 만들어지는 동안, 세계 각국은 각종 규제를 풀고 엄청난 자금지원을 한 결과 놀라운 연구실적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우석 박사는 백의종군 자세로, 엄청난 난관 속에서도 수압생리공학연구원을 이끌며 국제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내고 있으며,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동물복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인은, 전세계적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생명윤리 관련 가치관과 관련법이 변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소한 사람이나 법인이 없으므로 사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비 유용이나 전용의혹은 전문회계사가 아닌 과학자로서 법하기 쉬운 회계상의 실수이거나 현실적인 연구현장에서 일어나는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신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인 세포치료제의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인류의 생명을 위한 가치있는 휴머니즘적인 연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원천기술 증명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호주특허 획득여부의 생애가 달렸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승인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때 저희 기독교인은 황우석 박사의 과학적 역량을 살리고 대한민국 국익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황우석 박사의 무죄나 선처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대한민국의 국익과 기독교인의 염원 그리고 사법부의 정의가 어우러져 전국민에게 환영받는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

2009년 9월 9일
황우석박사 연구재개를 염원하는 기독교인 일동

전 북한1호 공훈배우 주순영선교사 출판감사에배드려...

탈북자 간증수기 『축복의 땅으로』를 출간하여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출판감사에배를 드렸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롬14:7-8)로 주제를 행사가 진행되고, 1부 이천국 장로 사회로 출판감사에배가 시작되었으며, 서해원 목사(동신교회)가 기도, 연기호 목사(남북교회협상임위원장)가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에 조의정 목사(한민족문화교회) "축복의 땅으로" 출판을 감사하여, 김재수 목사(삼척이원중앙장로교회)는 "30만 탈북자들을 위하여", 유정성 목사(신광교회)는 "민족화해협력과 북녘복음화를 위하여", 박형필 목사(개혁신학 총회)는 "대한민국/한민족 통일을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또한 이기택(전 민주당총재/현 민주당평통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 홍순경(탈북자 동지회 회장), 한창권(탈북인 총연합회 회장)들이 각각 격려사를,

김재현(강서구정장), 방지일 목사(영동교회 원로), 주대준 장로(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축사를 했다. 아울러 탈북간증수기 『축복의 땅으로』의 저자 주순영 선교사의 인사와 인영로 목사(통합 300만 성도운동본부장/북녘사랑재단 총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이 진행되어 평양예술단, 지저스패밀리, 한국위성친선동맹교회, 백학복교회 등이 출현해 축제의 장이 됐다. 이날 사단법인 북녘사랑재단 / 한민족문화예술선교회의 주최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한민족문화선양회, (사)탈북자 동지회, (사)탈북자총연합회, 평양민족예술단, 한류문화예술신문 등이 후원했다.

아울러 주순영 선교사의 탈북간증수기 "사선을 넘어서"가 단독 연재되고 있는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인터넷신문방송(www.jintv.kr)과의 인터뷰에서 주 선교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좌) 이천국 장로 (중) 주순영 선교사 (우) 지저스타임즈 대표 장남 목사

버지게 돌려드리다면서 사선을 넘어서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했다.

주 선교사는 자신이 겪어 왔던 치욕적인 북한에서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배고프고 춥고 굶주린 저 북녘 땅에서 견디다 못해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고 보니 이곳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땅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 목숨을 건 탈북자들의 행렬이 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우리 주변에는 2만여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생존한 사회와 체제에 적응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들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장차 북녘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고귀한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저들을 우리 민족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신다면 탈북자들은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곳이 축복의 땅

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축복받은 땅인 것을 알았습니다. 탈북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두만강을 건너, 압록강을 건너, 산을 넘고 그 무시무시한 공간들의 감시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개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심지어 전기방망이에 얻어맞아 죽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기 "축복의 땅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나리옵니다. 신앙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북한과 탈북자들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나아가 북녘복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순영 선교사가 집필한 탈북간증수기 『축복의 땅으로』가 1~2집으로 출간되어 있기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주순영 선교사는 자신의 매니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사선을 넘어 축복의 땅으로"의 저자 주순영 선교사와의 인터뷰에서..... 살롱

2009년 소진우 목사 부흥성회 일정

항상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3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위원장)
5-8 일산금관교회(주성민목사)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26-30 필리핀선교집회

2월 2-5 해방기도원(백재욱위원장)
6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위원장)
9-11 옥산성경결교회(박병정목사)
16-18 칠곡연합교회(김상호목사)
23-25 대전소망교회(조성봉목사)

3월 2-4 도원교회(유순기목사)
축복대심방

4월 6-8 목양교회(주화순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이투리교회(이재경목사)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
27-29 광성교회(임대은목사)
5월 4-7 에스라선교제자훈련센터(이진희위원장)
10-13 봄철축복성회(예복교회)
18-21 미쁜교회(이봉현목사)
25-27 선교지방문

6월 1-4 인천마가다락방기도원(박보영목사)
7-10 새롬교회(김대수목사)
11 한빛교회(임선택목사)
15-17 청주기도원(강성진위원장)
22-24 완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26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위원장)
29-1 외국교회(장보영목사)

7월 3 성소기도원(박정연위원장)
5-8 새영교회(이영근목사)
13-15 산성교회(김장남목사)
20-22 은혜기도원(조은위원장)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위원장)

8월 3-6 한얼산기도원(이영근위원장)
10-13 에바다응답기도원(최민숙위원장)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위원장)
23~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9월 7-11 온누리복음화수양회(엄기호)
14-16 열방교회(신보현목사)
21-24 교단총회
28-3 추석주간

10월 12-13 정기노회
13-15 서북교회(배경락목사)
18-20 생명의교회(백규식목사)
25-28 예광감리교회(류인덕목사)

11월 2-3 신원교회(맹조영목사)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정목사)
16-18 선교지방문
23-25 경일교회(박조일목사)

12월 7-9 신성교회(김병진목사)
14-17 해방수양관(백재욱위원장)
20-23 한마음교회(신규대목사)



강사 소진우 목사
010-5267-1434

- 로고스 세계부흥선교회 부총재
- 열방부흥선교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전화 : 02-3391-9676 / 010-5267-1434